

생활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 및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합의성 정보와 각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 합의성 지각이 개인의 우울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실주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검증하기 위해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합의성 지각의 정확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1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망감우울증척도, 합의성 지각 측정을 포함한 스트레스사건경험질문지, 그리고 생활사건귀인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 합의성 정보는 우울을 예언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주관적 합의성 지각은 우울을 예언하지 못하였다.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은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우울을 예언하는 경로에서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모형이 검증되었다. 한편 비우울집단이 우울집단에 비해 합의성 지각에서 더 정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과 인지왜곡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를 위한 시사점들이 논의되었다.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생활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예, 이영호, 1993)에 따르면, 개인이 경

험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내부, 안정적 및 총체적(internal, stable, global) 요인에 귀인하는 경우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귀인이 우울에 중요한 요인인데, 개인의 귀인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특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인양

* 이 연구는 1997년도 가톨릭대학교 일반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식(attributional style)과 발생한 생활사건이 지니고 있는 전귀인 정보(preattribitional information)이다.

우울증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하는 경향인 우울귀인양식(depressogenic attributional style)이 우울증 환자나 우울한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우울귀인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자기패배적이고 비관적인 방식으로 귀인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하는 반면, 우울귀인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보다 자기봉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우울귀인양식이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이영호, 1993; 이영호, 원호택, 1990 참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들은 각 사건마다 다른 귀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낙제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반면,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경우는 합의성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이 각 생활사건이 지니고 있는 전귀인 정보들- 합의성(consensus) 정보, 일관성(consistency) 정보 및 특이성(distinctiveness) 정보는 그것을 경험한 개인이 그 원인에 대해 귀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Kelley, 1967). 물론 이때에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전귀인 정보인지 아니면 전귀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영호, 원호택, 1990).

이영호와 원호택의 연구(1994)에서는 전귀인 정보 중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귀인의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같이 전귀인 정보를 다룬 연구들은 합의성에만 국한시켰는데, 이는 다른 전귀인 정보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나마 합의성 정보조차도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객관적 합의성 정보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측정된 합의성 정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귀인하는데 참조하는 합의성 정보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정보인가? 아니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도인가?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인은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 귀인을 할 때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합의성 정보 즉 합의성 지각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각 생활사건을 경험하는가 하는 보다 객관적인 합의성 정보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합의성 지각중 어떤 것이 우울을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합의성 정보와 주관적 합의성 지각을 측정하여, 각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에 합의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개인의 우울 정도와 상관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우울증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슬퍼하는 사람이지만 현명한 사람(sadder but wiser)'이라는 주장을 검증하는 연구(Alloy & Abramson, 1979)가 발표되면서 우울증이 인지적 왜곡과 오류의 결과라는 종래의 주장(Beck, 1967; Seligman, Abramson, Semmel, & von Bayer, 1979)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우울증의 사실주의(realism) 논쟁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우울증 환자나 우울한 사람들이 통제에 대한 지각(예, Langer, 1975), 수반성 판단(contingency judgement; 예, Alloy & Abramson, 1979), 성공에 대한 기대 및 예언(예, Alloy & Ahrens, 1987), 자기와 타인의 비교(예,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및 피드백의 회상과 지각(Vestre & Caulfield, 1986)에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사실주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울증 환자가 귀인에 있어서도 사실주의적이라는 것이 Alloy(1982)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그녀는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을 뺀 수치를 이기적 귀인편중의 지표로 삼아 이전의 9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기적 편중을 보였으며, 우울한 사람들은 이기적 편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사실주의적인 귀인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사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과거에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내부로 귀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사건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신에게만 독특한 경험이라고 판단하여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그 사건을 내부로 귀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의 차이를 가지고 귀인의 사실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사실주의의 객관적인 지표와 그것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주의에 관한 논쟁에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합의성 정보와 개인이 지각하는 합의성이 각각 우울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자신이 경험했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즉 몇 %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백분율이 주관적인 합의성 지각의 지표이다. 아울러 피험자들중 실제로 몇 %가 그 사건을 경험했는지 하는 것을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 합의성 정보로 간주하였다.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기 위해, 개인이 객관적으로 합의성이 낮은 사건과 높은 사건을 각각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계산하여 그 지표가 우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각 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판단한 합의성 지각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경험한 생활사건에 곱하여 그 지표가 우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생활사건의 합의성 정보 또는 합의성 지각이 사건의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 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사건 귀인이 합의성과 우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합의성 지각과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일치하는 정도가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객관적 합의성 정보와 개인의 주관적인 합의성 지각과의 차이를 구하여 합의성 지각의 정확성 지표로 삼아,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합의성 지각에서 더 정확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인 합의성 정보와 합의성 지각이 각각 어느 정도로 개인의 귀인과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 법

피험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심리학개론 수강생 214명(남자 175명, 여자 39명)을 피험자로 하였다.

도 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사건경험질문지, 무망감우울증척도, 생활사건귀인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스트레스사건경험질문지는 이영호(1993)가 제작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사건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사건에 대해 최근 2개월 동안 그 사건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대답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학생들 100명중 몇 명이나 그 사건을 경험했을까를 추측하여 써넣게 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이었다.

무망감우울증척도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이영호(1993)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의 정서적 증상(예, "슬프고 울적하다"), 인지적 증상(예, "내가 바라는대로 된 일이 없다"), 동기적 증상(예, "의욕이 없다") 및 자존심 저하(예, "내모습이 마음에 안든다")에 관련된 문항들이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반응방식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등의 4점 척도에 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한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2였다.

생활사건귀인질문지는 최근에 경험하였던 부정적인 사건들중 가장 힘들었던 세가지를 쓰게 한 후 각 사건의 원인을 내외성, 안정성 및 총체성 차원별로 귀인양식척도(이영호, 1993)와 같은 방식으로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내외성, 안정성, 그리고 총체성 등 세가지 차원별로 점수가 산출되었다. 각 차원 점수의 범위는 3점에서 21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인 요인, 안정적 요인, 또는 총체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을 나타낸다.

절 차

무망감우울증척도, 스트레스사건경험질문지, 생활사건귀인질문지가 묶여진 소책자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이 사용되었으며, 객관적 합의성 정보 또는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건 귀인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결 과

객관적 합의성 정보 및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각 생활사건의 객관적 합의성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피험자가 스트레스경험질문지의 각 생활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각 생활사건의 빈도와 백분율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장래의 진로문제로 고민'을 경험한 피험자가 162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구속' 또는 '형제 또는 자매의 이혼'을 경험한 피험자는 한명도 없었다. 추후의 분석에서는 각 생활사건의 백분율은 객관적 합의성 정보의 지표로 간주될 것이다.

객관적 합의성 정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각 피험자가 경험한 생활사건에 그 생활사건의 백분율의 제공근 값을 나눈 점수들의 합을 산출하여 무망감우울증척도의 점수(이후 '우울 점수'로 약함)와 상관을 구하였다. 이때 객관적 합의성 정보 점수를 제공근으로 변환시킨 것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의성 정보 점수의 범위가 넓어서 생활사건에 따라 가중치의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으며, 합의성 점수의 분포가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출된 객관적 합의성 정보로 가중치가 주어진 생활사건 점수의 합(이후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로 약함)은 합의성이 낮은 생활사건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각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이 생활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다고 판단한 백분율 점수가 주관적인 합의성 지각의 지표이다.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피험자가 경험한 생활사건에 합의성 지각 점수에 1을 더한 수의 제공근을 나

표 1. 각 생활사건의 빈도와 백분율

문항번호	생활사건	빈도(N=214)	백분율(%)
1.	배우자나 애인의 죽음	5	2
2.	형제 또는 자매의 죽음	1	0.5
3.	부모의 죽음	3	1
4.	데이트 신청을 거절 당함	40	19
5.	본인의 구속 (감옥)	4	2
6.	가족의 구속 (감옥)	0	0
7.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2	1
8.	형제 또는 자매의 이혼	0	0
9.	값을 능력이 없을 정도의 큰 빚을 집	2	1
10.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함	4	2
11.	가족의 가출이나 탈선	4	2
12.	부모의 불성실 또는 외도	3	1
13.	애인과 헤어짐	25	12
14.	가장의 사업 실패 또는 장기 실직	8	4
15.	본인의 심한 질병이나 부상	17	8
16.	가족의 심한 질병이나 부상	28	13
17.	가족의 과음, 약물사용과 관련된 방탕한 생활	2	1
18.	부모가 이성교제를 반대함	15	7
19.	가까운 친척의 죽음	36	17
20.	친한 친구의 심한 질병이나 부상	42	20
21.	부모가 결혼을 반대함	3	1
22.	결혼전 성관계나 혼전 임신	13	6
23.	부모의 정년퇴직	3	1
24.	가까운 친구의 죽음	8	4
25.	금전상의 큰 손실을 봄(돈떼임, 사기 등)	15	7
26.	부모의 의견 또는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50	23
27.	장래의 진로 문제로 고민	162	76
28.	실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됨	17	8
29.	중요한 시험 실패	48	22
30.	성적인 고민이나 문제 발생	40	19
31.	중상모락을 받음	12	6
32.	도둑, 강도 침입, 화재, 또는 기타 재앙	12	6
33.	부모와의 심한 의견 충돌	39	18
34.	법적인 소송 제기	2	1
35.	수강과목 취소	18	8
36.	시력, 청력, 또는 치아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	31	14
37.	부모 이외의 가족과의 불화	25	12
38.	이성교제의 고민 또는 갈등	105	49
39.	더 나쁜 집으로 이사를 감	12	6
40.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됨	75	35
41.	학교에서 선후배 또는 동료와의 불화	57	27
42.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 버림	44	21
43.	신앙생활의 중단 또는 전환	30	14
44.	가족과 함께 모임 및 대화 시간이 줄어들음	99	46
45.	이웃에서 사건발생(화재, 범죄, 붕괴 등)	30	14
46.	가까운 친지나 친구와의 불화	34	16
47.	가벼운 위법행위를 함(교통위반, 경범죄 등)	60	28
48.	계획했던 휴가를 못가게 됨	30	14
49.	취미나 클럽 활동의 중단	40	19
50.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당함	3	1

표 2.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및 우울 점수 간의 상관관계수

	1	2	3	평균	표준편차
1.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1.00			1.52	1.39
2.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62***	1.00		1.62	1.65
3. 우울 점수	.12*	.08	1.00	13.20	8.07

$p < .10$. *** $p < .001$

눈 점수, 즉 합의성 지각으로 가중치가 주어진 생활사건 점수의 합(이후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로 약함)과 우울 점수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이때 합의성 지각 점수를 제공근으로 변환시킨 것은 합의성 지각 점수의 범위가 넓어서 생활사건에 따라 가중치의 차이가 너무 커질 수 있고 점수의 분포가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기 때문이며, 1을 더한 것은 나누어주는 수인 합의성 지각 점수가 0인 경우 수학적 계산상 불능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도 합의성 지각이 낮은 생활사건을 경험할수록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표 2에는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및 우울 점수간의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와 우울 점수간 상관은 .12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r = .08$, $p < .10$,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와 우울점수간의 상관은 .08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와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간의 상관은 .62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두 변인이 우울 점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우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각 변인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가 먼저 투입되었을 때 우울 점수 변량의 1.5%를 설명하였으며($p < .10$),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가 다음으로 투입되었을 때 우울 점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대로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가 먼저 투입되었을 때에는 우울 점수 변량의 0.6%를 설명하였으며($p = .28$),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가 다음에 투입되었을 때 우울 점수 변량의 0.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p = .16$).

합의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건 귀인의 매개 역할 검증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이 객관적 합의성 또는 합의성 지각과 우울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의 내외성, 안정성 및 총체성 점수를 평균한 점수(이후 ‘사건 귀인 점수’로 약함)를 산출하여,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또는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가 사건 귀인 점수를 예언하는지와 사건귀인 점수가 우울 점수를 예언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중다회귀분석하였다. 두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1단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객관적 생활

표 3. 우울 점수에 대한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와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의 중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R ² 변화치	F변화치	자유도	유의미도
우울 점수	1.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015	3.20	1, 212	.075
	2.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000	0.00	1, 211	.989
우울 점수	1.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006	1.19	1, 212	.277
	2.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009	1.99	1, 211	.160

표 4. 합의성 - 사건 귀인 - 우울의 매개 경로에 대한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R ² 변화치	F변화치	자유도	유의미도
1단계					
사건 귀인 점수	1.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031	6.75	1, 212	.010
	2.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001	0.31	1, 211	.581
2단계					
우울 점수	1. 사건 귀인 점수	.041	9.11	1, 212	.003
	2.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	.008	1.70	1, 211	.193
	3.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	.000	0.01	1, 210	.928

사건 점수가 사건 귀인 점수의 변량중 3.1%를 설명하는 한편, $F(1, 212)=6.75$, $p<.01$,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는 사건 귀인 점수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F(1, 211)=0.31$, n.s.. 2단계 회귀분석 결과는 우울 점수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사건 귀인 변인을 일차적으로 투입하였을 때, 사건 귀인이 우울 점수 변량의 4.1%를 설명하였으며, $F(1, 212)=9.11$, $p<.01$, 객관적 생활사건 점수와 주관적 생활사건 점수는 우울 점수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합의성 지각의 정확성 비교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합의성 지각을 더 정확하게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 점수의 평균(13.20)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 생활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과 객관적 합의성 정보의 차이의 합을 비교하였다. 우울 집단은 우울 점수가 14점 이상인 피험자 96명이 포함되었으며, 비우울 집단은 우울 점수가 13점 이하인 피험자 118명이 포함되

었다. 생활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과 객관적 합의성의 차이를 두가지 방식으로 구하였는데, 한가지 방식은 합의성 지각 점수에서 합의성 정보 점수를 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합의성 지각 점수에서 합의성 정보 점수를 빼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표 5를 보면 우울 집단과 비우울집단의 합의성 지각 정확성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단순감산 지표는 각 생활사건의 합의성 지각 점수에서 합의성 정보 점수를 빼 값을 모두 합산하여 생활사건의 수 50으로 나눈 값이다. 한편 절대값 지표는 각 생활사건의 합의성 지각 점수에서 합의성 정보 점수를 빼 값의 절대값을 모두 합산하여 생활사건의 수 50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두가지 지표의 값은 한가지 생활사건에서 평균적으로 보이는 합의성 지각과 합의성 정보의 차이이며, 점수가 작을수록 더 정확한 합의성 지각을 나타낸다.

우울 집단과 비우울집단의 합의성 지각 정확성 지표의 평균 차이 검증을 한 결과, 단순감산 지표에서 우울 집단의 평균이 1.36으로 비우울 집단의 평균 -2.1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212)=8.10$, $p<.01$. 이 결과는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합의성

표 5.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합의성 지각 정확성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 단	단순감산 지표		절대값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집단(N=96)	1.36	10.19	11.97	5.28
비우울집단(N=118)	-2.15	7.86	10.37	3.44

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절대값 지표에서는 우울 집단의 평균이 11.97로 비우울집단의 10.3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212)=7.05, p<.01$. 이 결과는 비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합의를성 더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합의성 지각 정확성 지표의 집단간 차이가 생활사건의 합의성 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사건 50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합의성 정보 점수가 16 이상인 생활사건(이하 '고빈도 생활사건'으로 약함) 16가지, 합의성 정보 점수가 6 이상이고 15 이하인 생활사건(이하 '중간빈도 생활사건'으로 약함) 18가지, 그리고 합의성 정보 점수가 5 이하인 생활사건(이하 '저빈도 생활사건'으로 약함) 18가지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정확성 지표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단순감산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고빈도 사건에서는 우울 집단(평균=-5.37)에 비해 비우울 집단(평균=-9.83)이 합의성을 더 과소평가하였고, $F(1, 212)=5.39, p<.05$, 중간 빈도 사건에서는 비우울 집단(평균=-0.47)에 비해 우울 집단(평균=3.02)이 합의성을 더 과대평가하였으며, $F(1, 212)=7.31, p<.01$, 저빈도 사건에서도 역시 비우울 집단(평균=3.17)에 비해 우울 집단(평균=5.88)이 합의성을 더 과대평가하였다, $F(1, 212)=11.11, p<.001$. 한편 절대값

지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고빈도 사건에서는 우울 집단(평균=19.30)과 비우울 집단(평균=18.98)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F(1, 212)=0.18, n.s.$, 중간 빈도 사건에서는 우울 집단(평균=10.66)에 비해 비우울 집단(평균=8.72)이 합의성 지각에서 더 정확하였으며, $F(1, 212)=6.11, p<.05$, 저빈도 사건에서도 역시 우울 집단(평균=6.61)에 비해 비우울 집단(평균=4.20)이 합의성 지각에서 더 정확하였다, $F(1, 212)=10.30,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에 기초하여 귀인의 전귀인 정보중의 하나인 합의성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객관적 합의성 수준이 낮은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주관적 합의성이 낮다고 지각한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이영호, 원호택, 1994)의 합의성 지각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것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합의성 지각 자체와 우울이 관련된다는 결과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합의성

표 6. 합의성 수준에 따른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합의성 지각 정확성 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합의성 수준	집 단	단순감산 지표		절대값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빈도 사건	우울집단	-5.37	15.23	19.30	6.39
	비우울집단	-9.83	12.83	18.98	4.92
중간빈도 사건	우울집단	3.02	10.75	10.66	6.76
	비우울집단	-0.47	8.12	8.72	4.68
저빈도 사건	우울집단	5.88	7.16	6.61	6.73
	비우울집단	3.17	4.63	4.20	4.14

이 낮다고 지각된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우울이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합의성 정보나 합의성 지각은 그 자체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합의성이 낮은 사건을 개인이 직접 경험했을 때 우울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을 매개하는 과정으로 그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인양식이 그 사건에 대한 귀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사건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합의성 정보도 귀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물론 귀인양식과 합의성 정보의 상호작용은 그 생활사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지 않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면 보다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 귀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귀인의 세 차원별로 따로 분석한 결과는 합의성이 낮은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총체성 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lley(1967)의 귀인 이론에서 가정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의 귀인 이론에 따르면 합의성이 낮은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내외성 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성 귀인과 총체성 귀인이 높은 상관($r=.35, p<.001$)을 보이는 것과도 관련되며, 귀인의 내외성 차원 측정의 신뢰도가 낮은 것에도 귀인될 수 있다(이영호, 1993).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울증 환자의 전귀인 정보 지각의 사실주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 집단의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합의성 지각이 얼마나 객관적 합의성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비우울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 집단은 비우울 집단에 비해 부정적 생활사건의 합의성을 과대 평가하였다.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고빈도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성을 과소평가하고 저빈도 사건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합의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생활사건의 빈도에 따라 변함이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생활사건의 빈도에 따라 합의성 지각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빈도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합의성을 과대평가하지만 더 정확하게 지각하며, 빈도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과대 평가하지만 덜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 집단이 생활사건의 합의성을 과대평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타인의 경험에 대해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같은 설명은 본 연구에서 자신이 경험한 생활사건의 빈도와 합의성 지각의 상관인 .53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면, 자신이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합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합의성 지각에서 합의성 정보를 빼 단순감산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생활사건 경험 빈도를 예언변인으로 먼저 투입한 다음 우울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생활사건 빈도가 단순감산 지표 변량의 27.7%를 설명하였으며($p<.001$), 우울도 부가적으로 변량의 2.3%를 설명하였다($p<.01$). 이 결과는 자신의 생활사건을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사건 경험에 대한 합의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우울 정도 역시 합의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합의성을 왜 과대평가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보다 통제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지만, 몇가지 가능한 설명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지향적인 주의의 경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판단에서 정확하지 못한 반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지향적인 주의의 경향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더 정확할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Alloy & Abramson, 1987). 둘째,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생기면 자존심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도 똑같은 사건을 자주 경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귀인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자신에게 귀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들이 자주 보고되어 왔다.

주관적 합의성 지각과 객관적 합의성 정보의 차이의 절대값을 산출하여 합의성의 정확성을 집단간 비교하였을 때, 우울 집단보다 비우울 집단이 더 정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정확한 인지를 보인다는 입장(Alloy & Abramson, 1979)에 반대되는 증거이며, 우울증이 인지적 왜곡과 오류의 결과라는 Beck (1967)의 전통적인 인지치료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생활사건의 빈도별로 살펴 보면, 빈도가 높은 생활사건의 경우에는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이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간 정도의 빈도나 낮은 빈도를 보이는 생활사건의 경우에는 비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보다 더 정확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적 왜곡이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생활사건의 합의성을 판단하는데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잘못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Kelley(1967)의 귀인이론을 적용하여 우울증을 설명하려는 귀인적 이론(Abramson et al., 1978)에서 주장하는 바와 상반되는 것이다. 귀인적 이론에서는 우울증 환자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고 유독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지각하고 따라서 그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림으로써 우울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임상적인 함의를 살펴 보

면, 대부분의 인지치료 이론에서 주장하는 우울증 환자가 인지적 왜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재귀인 훈련(reattributinal traing)과 같은 인지치료 방법을 개발하는데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의 치료나 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귀인양식뿐 아니라 개인이 경험한 생활사건 자체의 합의성 정보 역시 개인의 우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합의성 정보가 사건 귀인의 매개를 거쳐 우울을 설명한다는 결과는 치료상황에서 생활사건, 그 사건의 합의성 정보 및 그 사건에 대한 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으로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첫째 피험자가 정상 대학생 집단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임상적 우울증 집단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임상 집단에 반복검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생활사건 경험 여부와 합의성 지각이 함께 측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이 경험한 생활사건을 보다 합의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같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객관적 합의성이 낮은 사건을 개인이 직접 경험했을 때 우울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것을 매개하는 과정으로 그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 그 설명 변량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는 규준적인 합의성 정보의 측정과 보다 많은 사건 귀인을 포함시킨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귀인 변인을 다룸으로써 우울증에 대한 귀인적 이론이 좀더 포괄적인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의성만을 다루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일관성 또는 특이성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이영호(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원호택(1990). 우울증과 인과귀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권 1호, 111-133.
- 이영호, 원호택(1994). 귀인양식과 합의성지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 3권 1호, 28-48.
-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lloy, L. B. (1982). *Depression: On the absence of self-serving cognitive bias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 C..
- Alloy, L. B., & Abramson, L. Y. (1979). Judgement of contingenc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students: Sadder but wise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8, 441-485.
- Alloy, L. B. & Abramson, L. Y. (1987). Depressive realism: Four theoretical perspectives. L. B. Alloy(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 (pp. 223-265). New York: Guilford Press.
- Alloy, L. B., &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15, pp. 192-23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Seligman, M. E. P., Abramson, L. Y., Semmel, A., & von Bayer, C.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Vestre, N. D., & Caulfield, B. P. (1986). Perception of neutral personality description by depressed and nondepressed subjec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31-36.

The effects of consensus perception and objective consensus information of life events on depression

Young-Ho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e effects of consensus perception and objective consensus information of negative life events on depression in the context of attributional theory. And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whether depressives have realistic consensus perception. The results of cross-sectional data from 214 college students showed that objective consensus information of negative life events tended to predict depression but consensus perception did not. The mediation effect of event-attribution between objective consensus information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Nondepressives showed more accurate consensus perception than depressive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ttributional theory and the cognitive distortion theory of depression. The limitations and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also discussed.